김밥과 김뱀

(마23:29-39)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김밥과 김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김밥은 김에 밥을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넣고 말아서 만든 음식입니다.
김밥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

여간 김밥입니다.
그러면 김뱀은 도대체 무엇인가?
껍데기는 김을 그대로 쓰기는 하는데 그 속에 밥과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뱀이 들어가 있는 것이 김뱀입니다.
밥과 뱀, 밥이라는 말과 뱀이라는 말의 철자가 많이 비슷하지요.

김밥은 참 신앙인의 모습, 참 신앙인의 인격을 김밥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목숨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밥 아니겠습니까?
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격인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이 안에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김밥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먹어야 될 밥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먹고 있고, 머금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비유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을 띠고는 있는데- 김으로 싸여있는데-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밥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뱀을 싸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선민의 그룹 안에 김밥이 아니라 김뱀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일곱 가지의 화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의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김뱀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김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 그 무덤들을 장식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이것이 참 못마땅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좋아하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갸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전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나는 아버지처럼 전과자가 되지 않을래, 난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가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전과자이니까 나도 전과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조상들을 기억해내면서 ‘우리 같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기특하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용적으로 반드시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놈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다시 말해 김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문제가 뭘까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밉니다, 무덤을.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볼 때 그들의 삶은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인격의 타이틀,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볼 때 확인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전혀 안 맺으면서 선지자라는 껍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는 뱀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있었던 김밥이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선지자라는 김을 갖고 왔을 뿐, 그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뱀이 된 거예요, 김뱀.
선지자들 의인들의 타이틀인 그들의 껍데기를 좋아하고 알맹이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죽이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선지자의 타이틀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김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담 이후에 주님 때까지의 선민들의 역사를 한 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김뱀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김뱀들의 선지자들을 죽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김뱀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역사, 김뱀들의 반란이 바로 선민들의 역사를 한 마디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김뱀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우리들이 김밥이냐, 김뱀이냐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뱀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인지 아닌지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해서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서 뱀이 한 일을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비어있고, 비어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정한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빈 마음속에 채워 넣음으로써 행복해지고 기뻐지기를 원한다, 이 일을 뱀이 시킨 겁니다.

그러면 뱀이 유혹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정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좋은 것은 주어져 있는 것뿐

인데 그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었고 좋은 것의 유일한 존재였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채움으로써 기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인 기쁨의 동산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의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나도 좋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리고 좋다고 여긴 그것을 빈 마음에 채워 넣으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밥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김밥이 되어야 되는데, 김뱀이 되어서 하는 일이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여긴 것들, 그건 내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아니면 연예인에게 인기든, 권력이든, 좋은 것을 집어넣고, 또 목사님들 같으면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든 예배당 건축이든, 이런 것을 마음에 집어넣어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정해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 다니는 게 뱀이고, 김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김뱀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뱀이에요.
김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영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독사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김은 김인데 그 안에 독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김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전혀 바리새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의 속과 똑같은 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사업 잘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싶고, 멋진 예배당 짓고 싶고,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상태이면서 맨 날 바리새인을 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욕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누구보다 앞서서 죽일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뱀의 속성과 영성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김뱀이 누구라고 했지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 좋다고 정해놓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욕망하면서 그것으로 채워질 때라야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다 김뱀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배수진을 치자!’
이 세상에서는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이 없습니다.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 것들을 먹어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의 영성이에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원래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그래서 자식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로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돈을 벌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 기쁜 상태가 되어서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김밥들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김뱀들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김뱀의 구조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것은 아담 이후부터 선민들의 구약 속에 나오는 역사 전체를 통괄해서 한 마디로 요약하시는데, 김뱀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왜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돈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승진을 먹고 기쁘고 배부르고 싶은데, 선지자들이 와서 승진으로 기뻐하지 말고, 돈 벌어서 기뻐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뺏는 것으로 여기고, 승진 뺏는 것으로 여겨서 죽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만 좋아하라고 그러니까 죽여 버리는 겁니다.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김뱀이 걸려 죽은 거예요, 김뱀이.
그래서 구리뱀 장대를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사건에서.
그 구리뱀 장대를 왜 바라봅니까?
내가 바로 뱀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뱀이 누굽니까?
이 땅을 배로 기어 다니면서, 배로 기어 다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뱀이에요, 내가 뱀이라는 겁니다, 내가 김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내가 바로 김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김으로 둘러싸여있긴 하지만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밥으로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뱀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 것에 굶주려서 살고 있었던 뱀입니다.'
이렇게 내가 뱀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김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뱀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김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성경공부를 해서 모세 이야기를 잘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듯이 그렇게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를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껍데기만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공부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무덤 꾸미기, 비석 단장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가졌던 능력만 원하는 겁니다, 능력만.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만 원하는 거예요, 역사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 꾸미기에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뱀이 돼가지고.
진짜 모세가 나타나면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있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김밥인가, 김뱀인가, 분명히 헤아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뱀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김밥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김뱀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죽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선민의 역사가 김뱀들로 선지자들을 죽인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배를 붙이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선악과로 먹은 결과 판단하며, 그것들로 채워 기뻐하려는 뱀의 유전자들을 십자가에서 끊어내고 하늘백성으로 참 김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